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졌다. 구조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중략) 그런 식으로 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 중증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들의 이송 시간은 평균 245분,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목숨들은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본문 중)

‘아텐만 영웅’ 석해균 선장과 총격을 받은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교수. 그에게는 늘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 시스템이라는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증외상 분야 불모지나 다름없을 만큼 이 분야의 시스템이 취약하다.

외과 의사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의료현장의 현실과 고뇌를 담은 에세이를 펴냈다. 모두 2권으로 출간된 ‘골든아워’는 의료 현장에 대한 냉정한 보고서이자 생명을 지키려 애썼던 많은 이들의 분투기다. 흥미로운 점은 수술을 마치고 나온 뒷모습을 책 표지로 삼았다는 것이다. 어떤 말과 설명이 필요 없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의 허탈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 여운으로 다가온다.

이국종 교수에게 ‘인생의 책’ 가운데 하나는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다. 외과 의사인 그가 ‘이순신의 칼’ 이야기에 빠진 건 ‘칼’을 쥔 자로서의 자존과 소명 때문일 것이다. 소설 속 이순신이 ‘세상의 모멸과 치욕을 살아 있는 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알 수 없는 무의미와 끝까지 싸우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국종 교수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의 시스템과 싸워야 하는 자신의 상황과 닮아 있다고 본다.

이순신과 그의 칼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죽이는 칼’이며 다른 하나는 ‘살리는 칼’이라는 것이



골든아워 1-2

이국종 지음

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상의 가능일 뿐 두 사내의 칼에 의해 나라가 살고, 한 생명이 산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지난 200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진료기록과 수술기록에서 가려 뽑았다. 기억 속에 남겨진 파편들이 정밀하게 직조됐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 기록은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사선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환자와 내 동료들의 치열한 서사”라며 “외상으로 고통 받다 끝내 세상을 등진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환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싸우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2002년 이 교수는 지도교수의 권유로 외상외과에 발을 내딛으며 전환점을 맞는다. 원칙대로라면 환자는 골든아워 60분 내에 중증외상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또한 수술방, 중환자실, 마취과, 혈액은행 등 여러 분야의 의료 자원이 신속히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판이하게



아텐만 영웅

석해균 지음



‘아텐만 영웅작전’ 4주년 기념식이 열린 2015년 1월 2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내 최영함에서 석해균 전 삼호주요리호 선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해부대원이 지난 2011년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화물선 삼호주요리호에서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을 소탕하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삶과 죽음의 최전선 중증외상센터 현실과 고뇌 담아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분투

‘아텐만 영웅’ 석해균 선장 살리려 현지까지 달려가기도

달랐다. 그때부터 국제 표준의 중증외상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책에는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의 분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철학 때문이다. 그가 팀원들을 이끌고 ‘아텐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 달려간 것은 그러한 사례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법이다. 석 선장은 무

겁게 떨어지는 칼날이었다.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쁠 때 의사들은 선불리 나서지 않는다.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고, 최악의 경우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석 선장이 소생하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중증외상센터 사업도 “장책의 우선순위”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그럼에도 그가 선진국형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건 생명의 소중한 때문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길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죽음의 기록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는 허망한 숫자로만 표기될 뿐이다. 외상외과 환자들은 대부분은 가난한 노동자이고,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는 없는 자들을 비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불빛은 외상외과에 닿지 않는다.” (〈흐름출판·각 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쓰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박생강 지음 ‘에어비엔비의 청소부’

2017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우리 사우나는 JTBC 안 바요’를 펴낸 박생강 작가가 신작 장편 ‘에어비엔비의 청소부’를 펴냈다.

박 작가는 지난 2005년 장편 ‘수상한 식모들’로 문학동네 장편소설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세 권의 장편과 한 권의 소설집을 냈다. 이번 소설은 작가가 이태원의 어느 ‘에어비엔비’ 룸 세팅 및 청소 프리랜서 일을 제안 받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겪은 흥미로운 일화나 소설의 주재료가 됐다. 위트와 상상력이 번뜩이는 작품은 타인의 비밀에 깃든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설은 이태원 ‘에어비엔비’에서 하룻밤 묵게 된 주인공 ‘나’가 전직 해커 출신 청소부 ‘윤’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에 깃든 삶의 진실에 천천히 스퍼드는 이야기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내 삶을 온전히 결정짓게 되는 과정을 유려한 필치로 보여준다.

각박한 현실 앞에 무력하게 끌려 다니기만 했던 두 주인공 ‘나’와 ‘윤’. 이 두 인물은 ‘에어비엔비’에서의 찰나적인 만남을 통해 각기 온전한 나로 우뚝 서 두려움 없이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소설은 아무 연관도 없는 타인이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한 이후 벌어지는 일화를 통해 진정 내 삶에서의 중요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이 물음에 대답을 준비하는 두 주인공, 이들은 타인에 대한 끈질기고 깊은 이해만이 우리 삶을 한 발 밀어 나아가게 한다는 다소 진부하지만 명쾌한 진리를 재확인하게 된다.

〈은행나무·1만1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정현 지음 ‘그랜드 차이나 벨트’

21세기 격동의 세계는 중대한 변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포진한다.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 추진력은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 재정 고갈로 인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기 불황에 아랑곳없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약동하는 중국 경제를 입체적으로 해부한 책이 나왔다. 소정현 기자가 펴낸 ‘그랜드 차이나 벨트’는 중국 현대경제의 경이적인 양상을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해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을 세심하게 알아야 한다는 원론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각론적 접근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거점 지역이면서도 세계를 리드하는 분야와 영역에서 속도감 있게 행진 중이다.

바야흐로 중국은 정치와 경제 양측에서 눈치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 예고탄은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회귀 우려를 여실히 자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야심찬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자는 보험업, 은행업, 핀테크 등 괄목할 만한 발전상을 추적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포털과 소셜 미디어 영역에서 경이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양상도 들여다본다.

저자는 아시아 맹주로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국을 시샘하거나 경원시하는 시각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절대 종이호랑이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기에 상호 접점을 찾는 실사구시가 필요하다. 입장이다.

〈행복에너지·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중성 지음 ‘나는 세종이다’

지난 9일은 572돌 한글날이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빛나는 문화 창달을 이끈 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왕의 아들, 왕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한 인간의 삶은 어땠을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월간 ‘말’ 동북아 전문기자를 지낸 김중성은 ‘나는 세종이다-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적인’을 통해 세종의 내면에 있었던 8가지 고뇌를 돌아봤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결단으로 양양이 폐위되면서 왕위 계승 수업을 받지 못하고 왕이 됐다. 하지만 왕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태종의 ‘애정 어린’ 4년간의 섭정을 받으며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씁쓸함을 겪어야 했다.

이 책은 600여 년 전 조선으로 돌아가 세종이 처했을 가족관계, 조정의 군신관계 등의 인간관계와 주변국 정세 변화 속에서의 조선 왕의 실제 모습을 8가지 고뇌로 나누어 따져본다.

과연 세종이 늦게까지 일하는 성균관 유생에게 옷을 덮어준 자애로운 임금이었는지, 과학기술 중흥을 위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장영실 같은 노비출신을 등용하여 쓸 만큼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었는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세종이 어떻게 자신의 고뇌를 벗어나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세종은 왜 결사반대하는 신하들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한글 창제를 강행했을까?’, ‘과연 그의 시대는 왕권이 안정되고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렸을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인간 세종’의 모습을 찾아가 본다. 독자들은 많은 갈등과 고민, 좌절을 겪게 되는 세종을 보면서 역사의 벽을 넘어 ‘인간 세종’을 만난다.

〈복오선·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